

"3퇴" 와 평안

제 117 기

《9 평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였다. 2013 년 4 월 21 일까지 이미 1 억 3 천 6 백 77 만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하였다.

가금 유행성 감기 소식에 놀란 관광객들은纷纷히 "3퇴"하고 평안을 지켰다

해외의 한 풍경구에서 관광객들은 탈당 자원봉사자가 대륙관광에서 H7N9 가금 유행성 감기를 보도하였으며 상해는 역병 발생상황이 엄중한 구역이라고 했다고 하자 사람들은 즉시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해외로 온지 몇일도 안되며 죽은 돼지 일도 똑똑히 밝히지 않았는데 또 어찌 가금 유행성 감기가 나타났는가?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한 것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역사상에 놀랍게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1 천년 전 고대 로마에서 몇차례 큰 온역이 발생했었다. 당시 네루(尼祿) 황제가 있었는데 기독교 신도들이 사교(邪教)를 믿는다고 날조하면서 기독교 신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거나 경기장에 내던져 사자에게 먹였다. 네루가 자살한 후 로마에서 첫 번째 큰 온역이 발생하여 100 만여 명이 죽었다.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강택민이 파룬궁을 박해하여 수천수만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랍치, 감금, 혹형, 불구,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당하고 시체매매를 당하였는데 이들을 박해한 자들이 범한 최악은 사람과 신이 모두 공노하고 있다.

어떤 관광객은 말했다: 고대 로마의 큰 온역의 역사는 알고 있지만 온역은 네루가 기독교 신도를 박해한 것과 관련된다는 것은 몰랐다. 어떤 관광객은 말했다: 나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강택민이 파룬궁을 박해했으니 그

는 네루와 마찬가지로 꼭 보응을 받을 것이다. 어떤 관광객은 말했다: 그렇다. 보응은 마땅하다! 하지만 백성들도 따라서 화를 입으니 너무나도 억울하다!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당시 네루가 기독교 신도들을 박해할 때 로마의 매우 많은 사람들은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경기장에서 사자가 사람을 먹는 것을 좋다고 외치면서 이것을 쾌락으로 여겼다!

관광객들은 듣고나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을 딱 벌렸다. 자원봉사자는: 지금 중국의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렇지 않는가? 공산당이 파룬궁에게 씌운 거짓을 듣고 믿으면서 파룬궁을 증오하고 그들에게 진상을 말해주어도 듣지 않으며 진상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채하면서 자신이련루될가봐 두려워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자원봉사자는: 큰 온역은 인류의 겁난이며 하늘이 사람에 대한 징벌이다. 파룬궁을 증오하고 강택민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여 돈벌이하는 것을 모르는채한다면 네루가 기독교 신도를 경기장에 내던져 사자에게 먹히는 것을 찬성하는 것과 같다. 이런 량지와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천리가 용납할 수 없으며 바로 큰 온역에서 생명을 잃게 될 대상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4 번째 온역에서 어떤 사람은 감염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친인들과 함께 죽으려고 환자 옆에 바싹 붙어 있었도 죽지 않았다. 무엇을 설명하는가? 병독은 눈이 있으며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을



그림: 2002 년 6 월, 귀주성 평당현 장포항에서 2.7 억만년 되는 “장자석”을 발견했는데 돌의 절단면에 “중공공산당망” 6 개 큰 글자가 나타났다. 후에 중국과학원 지질전문가들은 천연으로 형성되었다고 검증했다. 위 그림은 풍경구 문표이다

따름이다.

관광객은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면 되나요? 자원봉사자는: 걱정말아요. 방법이 있어요. 신불은 지비로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시비선악을 똑똑히 가려야 해요. 강택민은 당 두목이며 그가 파룬궁을 탄압하겠다고 말한 그때로부터 그와 중공은 미래가 없으며 틀림없이 멸망될 것이예요. “하늘은 중공을 멸하려 한다”. 죽은 돼지, 죽은 오리, 가금 유행성 감기 모든 것이 하늘이 사람에게 주는 경고가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살길을 찾으라고 귀뜸해주는 것이며 큰 재난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으니 하늘의 뜻을 따르면 겁난을 피할 수 있다. “3 퇴”(탈당, 탈단, 탈대) 하면 평안을 지킨다! “당, 단, 대”에 가입했던 사람은 어서 빨리 탈출하며 무엇에 가입했으면 무엇을 탈출하며 철저히 탈출하면 당신은 안전하다.

“3 퇴”후 관광객들은 자원봉사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 마음이 확 띄었으며 파룬궁에 감사드려요! 한 중년 상해 남자관광객은 말했다: 하늘은 언녕 그것을 거두어야 하며 내가 보기에 지금이 바로 때가 되었어요. 한시간 반 사이에 도합 63 명이 “3 퇴” 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다

【명혜망】 나는 2011 년 연말에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련공하기 전 나는 머리 다통을 좋아하여 심적 상태는 매우 나빴고 또 질병의 시달림으로 하루 종일 수심에 찬 얼굴이었으며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함을 가끔 느꼈다.

나는 심한 풍습병, 경추병, 요추관절돌출 등 여러병이 있었다. 3 번의 치질수술, 1 번의 제왕절개 수술, 1 번의 류산으로 신체는 극히 허약했고 반신에는 찡찡 저리는 감이 나타났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였더니 의사 선생은 말했다: “요추경추 압박이 심하여 길어서 반년이면 마비가 올 것이다” 중의의사는 말했다: “신체 여러 곳이 모두 조화가 안되어 약을 지어드릴 수 없어요.” 나의 손과 발은 하루종일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다만 한가닥 숨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도처에서 의사를 찾아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못하여 그때의 삶은 매우 힘겨웠다. 바로 이때 나의 직장에 파룬궁 수련생 한명이 왔다. 그는 나에게 파룬궁 진상을 말해주었지만 중공 선전의 독해를 받아 나는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뿌리가 붉고 싹이 바르다”고 인정하였고 또한 대학에서 첫째 중공 사당조직에 가입하였기에 사당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하루 그가 나에게 《풍우천지행(風雨天地行)》의 CD 을 보여 주어서야 나의 마음의 매듭이 단번에 풀렸다. 《전법륜》(파룬궁의 주요저작 이미 30 여종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에서 발행하고 있다) 을 보고서 이 책에서 말한 것이 모두 옳고 모두 좋고 이것은 정말 세계상에서 가장 좋은 책이며 나의 인생을 가리키는 등불이라고 느꼈다

이로부터 나는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섰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질병들은 완전히 사라져 온몸은 매우 가벼워졌다.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마비되려는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나의 어머니는 폐암에 걸려 의사 선생은 말기라고 하면서 길어서 3 개월 밖에 살 수 없다고 했으나 어머니는 대법수련에 들어서 한달도 안되는 사이에 폐암이 사라졌다.

나도 지금은 도처에서 진상을 말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파룬따파는 좋다는 명백히 알고서 중공사당의 당, 단, 대에서 탈출하고 아름다운 미래로 들어서기를 바란다! (문 / 할빈대법제자 우청) ◇



그림 : 2013 년 4 월 9 일 미국 국회 참의원 외교사무 위원회의 “아프리카주, 전세계 건강과 인권 위원회”는 중국인권 문제에 관한 방청회를 열었다.

미국의 유명한 참의원이자 아프리카주, 전세계 건강과 인권위원회 주석인 크리스·스미스는 북경에 방문갔다가 친 눈으로 로교소의 사악을 견증했다고 표명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은 강박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있으며 매우 많은 사람들은 이로하여 심한 질병에 걸렸고 심지어 사망되었다.” “중공은 종교인사를 선택하여 감금하였다. 레를 들면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량심범이며 책임을 도피하려 한다”

그는 말하기를 “중국에서 계속 로교체계를 하는 것은 수치이며 이것은 나치스 집중영과 비슷하다.” 기자가 목전의 일부 중공 매체에서 마상가에서 실시한 혹형을 폭로했지만 중요한 정보가 빠졌는데 즉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묻자 그는 말했다: “목전 가장 중요한 것은 박해를 정지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는 모든 박해 책임자들을 법으로 처형하는 것이다. 그런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청산을 도피할 수 없다.”



그림: 2013 년 4 월 5 일 부터 7 일, 3 일간의 전민 건강 전시회가 캐나다 토론토 회전 중심에서 성대히 열렸다. 파룬궁을 소개하는 전시대 앞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와서 파룬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물었다. 위 그림은 파룬궁에 흥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창 공법을 배우고 있다.

탈당단대방법(진명, 가명, 필명도유효) : * 탈당전화: 001-416-361-9895, 001-702-873-1734 * 탈당팩스: 001-702-248-0599

* 탈당전자우편: tuidang@epochtimes.com * 인터넷에 오르지 못하는 이는 탈당성명을 공공장소에 붙이고 후에 인터넷에 올리면된다

대륙 로교소의 흑형피해자 주요 단체는 파룬궁 수련생이다

대륙 매체에서 마삼가 로교소의 흑형 사건 폭로에 대한 논평

【명혜망】 요즘 대륙 《재경(财经)》 잡지 아래의 《Lens 시각》 잡지는 2 만자에 달하는 단독조사 《마삼가에서 나오다(走出马三家)》를 발표하여 료녕성 마삼가 녀자로교소의 진실한 상황 : 럽가노동, 체벌, 작은 칸에 가두기, 전기격타, “높이 달아매기”, “호랑이 의자(老虎凳)”에 앉히기, “사체침대(死人床)” 동여매기... 이름을 밝힌 피해자의 진실한 이야기를 통하여 나타냈는데 문장이 인터넷에서 부단히 전재된 후 지속적으로 발효되고 있다.

매우 많은 민중들은 치가 떨리는 흑형을 보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으며 매우 많은 사람들은 중공의 폭행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차마 내리 읽을 수 없으며 이러한 폭행이 21 세기의 오늘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믿을 수 없다고 표했다. 특히 어떤 독자는 매체에서 폭로한 마삼가 로교소를 “인간지옥”이라고 했다.

로교소에서 흑형 피해자 주요 단체는 파룬궁 수련생이다

대륙매체에서 폭로한 이런 것들은 로교소에서 사용한 흑형은 최초로 주요하게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상대로 했다는 이 점에 대하여 보도중 회피했다. 미연합사(美联社) 4 월 9 일의 보도는 Lens 잡지가 마삼가 로교소 학대에 대한 보고는 파룬궁 정신운동 성원이 10 년전에 국제사회에 상소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다고 했다.

1999 년에 강택민은 개인의 질투로 하여 파룬궁 박해를 결정하여 서부터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국가기구는 죄다 파룬궁을 탄압하는데 리용되었다. 로교소, 구류소, 그리고 여러가지 구실로 된 세뇌중심은 부단히 “때려 죽이면 자살로 치고”, “신분을 조사하지 않고 직접 화장하라”,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절단하고

육제상에서 소멸하라”는 등 하나하나 최고 권력자한테서 온 명령을 받았으며 중공 악경은 힘을 아끼지 않고 파룬궁 수련생을 “전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금전의 장려, 높은 지위에 오르는 도경이었다. 법률과 량지의 속박이 없는 하에 사악한 박해정책은 그런 로교소의 경찰들을 인간 지옥의 마귀로 변화시켰다.

위키백과(维基百科)의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340 개 로교소에 갇힌 적어도 25 만명 중 약 50%이상은 파룬궁 수련생이고 연합국에 기록되어 있는 중국 흑형과 학대 공소 안 건중 60%는 파룬궁 수련생이다.

마삼가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흑형박해로 출세했다

심양시 위홍구에 있는 마삼가 교양원은 1999 년전에는 해마다 적자여서 전기세마저 지불하지 못했다. 중공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한 후 당지 정부는 성내의 각지에서 마삼가 교양원에 압송한 파룬궁 수련생 매인당에 1 만원씩 투자했다. 2004 년 불법으로 마삼가에 감금된 파룬궁 수련생 총 인수는 이미 4 천여명에 달했으니 그것은 곧 바로 4 천만원이다.

중공 사법부는 전문자금 백만원을 마삼가에 투자하여 “환경”확대에 썼다. 2003 년 파룬궁을 박해한 또 다른 대표인물인 박희래는 10 억을 투자하여 료녕성에 감옥 확대규모의 개조공정을 비준하였으며 단지 마삼가 한곳에 5 억여원을 소모하여 중국의 첫 감옥성을 건설하였으며 면적이 2 천무이고 마삼가 녀자 로교소를 건설했다. 악경 소경(苏境)은 마삼가 로교소 소장직을 맡고 있는 기간 파룬궁 박해에 힘을 아끼지 않아 중공 “610 사무실”에서 “2 등공”을 수여받고 중공 사법부에서 5 만원 장금을 주었다.

2000 년부터 2013 년 4 월 7 일—대륙 매체에서 로교소 흑형을 폭로한 날까지 명혜망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마삼가 로교소에서 박해 받은 경력을 폭로하고 이야기한 보도, 평론, 정기간행물은 도합 8 천 1 백 9 편이 되었다. 위에서 말한 흑형외 또한 녀성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야만적인 성침해를 진행하였다. 사처에 전기격타, 녀 파룬궁 수련생의 옷을 죄다 벗겨 남자감옥에 넣어 제멋대로 유린하게 했다. 해외 인권조직의 보도에 따르면 2000 년 10 월 중공 전 정법위원회 서기 라간이 마삼가 로교소에 머물러 있을 때 마삼가 로교소 경찰들은 18 명 신앙을 견지하면서 “전화”하지 않는 녀 파룬궁 수련생의 옷을 죄다 벗겨 남자감옥에 넣어 남자 범인들이 제멋대로 강간하게 하여 적어도 5 명이 죽고 7 명이 정신이 실성되고 나머지는 잔폐로 되었다.

“인간지옥” 마삼가 로교소의 더럽기로 이름있는 흑형과 시달림의 수단은 과거 10 여년간 도리어 전국각지 로교소에서 분분히 모방하는 “모범”으로 되었다.

《마삼가에서 나오다(走出马三家)》에서 묘사한 류옥령(刘玉玲), 왕계란(王桂兰), 장아화(张亚华)등이 당한 흑형 시달림은 과거 13 년동안 중국의 크고 작은 로교소, 세뇌중심에서 “썩 썩 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 수련생의 몸에서 한시도 멈추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 어떤 사람도 로교소의 흑형박해를 받는 자로 될 수 있다.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마삼가의 흑형은 초기에 파룬궁 수련생의 몸에 가했는데 후에는 로교계통에서 이미 박해대상을 확대하여 보통 상방민중, (제 4 면으로).

·희생양"에게 딱 맞춰 정해놓은 한조의 법률

【명혜당】 《공무원법》 제 9 강 제 54 조에 규정하였다 : “공무원은 뚜렷하게 위법된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하면 마땅히 법에 의해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기실 이 법률은 중공의 “희생양”에 딱 맞춰 정해놓은 것이다.

파룬궁 문제는 중공을 똑똑히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중공이 령도를 바꾼 후 파룬궁에 대한 감금 혹은 형 판결은 증가되었지 줄어들지 않았으며 장기 생체적출은 여전히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공 각급의 공안, 검찰, 법원인원들은 여전히 대량으로 법을 위반하고 대량으로 죄를 범하고 있다……사실이 표명하다싶이 다년간의 박해는 이미 모 한패거리 혹은 개별적 사람의 행위가 아니며 가악투 본질을 띄고 있는 중공이 박해를 조종하고 있다.

그러한 앞장서서 “박해를 집행”한 각급의 공안, 검찰, 사법인원들은 중공이 그들을 리용하여 법제를 유리하고 선량을 탄압하였는데 이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해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사람들 보다 다소 온정된 “밥 그릇”이 있기에 법을 위반하고 죄를 범한 후

“사람을 유인하는 눈꼽만한 리익”의 착각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진정한 “당정책의 수익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당이 리용하는 공구이며 이미 정해진 “희생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중공이 선양하는 “당의 기를 국법”, “당”은 영원히 “국법”을 롱가하고 있다. 력사와 현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당은 중국에 진정한 법제를 가져다 줄 수 없으며 또 법률을 말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리용하고 있다. 일단 당의 위기를 완화하려면 바로 일부 사람들을 내던지고 “민분을 가라앉힌다”——공안, 검찰, 사법인원, 당신들이 이렇게도 많은 확실한 증거있는 죄행을 저질렀으니 당이 “법에 따라” 당신을 처단하고 내던지지 않으면 누구를 내던지겠는가?

하지만 세상에는 또 한갈래 희망의 길이 있다 : 바로 사당을 똑똑히 보아내고 정상적이고 독립적이고 온전한 인격과 행위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9 평공산당》등 진상은 사람을 도와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 (문 / 몽성) ◇



사람의 생명은 마치 한척의 배 같이 만일 항행중에 너무 많은 물질욕망과 허영심을 실으면 생명의 배는 극히 쉽게 도중에 좌초되거나 침몰하게 된다.

아프리카 주의 토속인은 일종의 특이한 사냥 방법으로 성성이를 붙잡는다고 한다 : 하나의 고정된 작은 나무통 안에 성성이가 가장 즐겨먹는 견과를 넣고 통에 작은 구멍을 내어 성성이의 앞발이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성성이가 일단 견과를 잡으면 발은 더는 빼낼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은 늘 이런 방법으로 성성이를 잡는다. 왜냐하면 성성이는 한가지 습성이 있는데 손안에 잡은 물건을 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늘 성성이의 우매를 비웃고 있다 : 왜서 견과를 놓고 발을 빼내어 살려하지 않는가? 기실 도리켜 우리 자신을 생각해보면 혹시 발견할 수 있다. 단지 성성이만 이런 착오를 범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물질욕망이 팽창되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눈앞의 리익만 보이고 가능하게 위험은 바로 주위에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다.

내가 어릴적 살던 마을에 큰 불이 났었다. 당시 한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에 신속히 도주하여 일가족의 생명을 모두 보존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이웃은 매우 부유하여 큰불에도 재차 방에 뛰어들어 고급 가구를 운반하고 현금을 찾다가 불에 휩싸이고 말았다.

선택과 포기를 알아야 가볍게 나아갈 수 있다. 물질욕망과 허영심을 적당히 절제하면서 멈춰서 생각하고 주위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보면 생명의 배는 안전하게 온당하게 항행할 수 있다. ◇

(3 면의계속)

정의기자. 변호사. 이사회, 인터넷에서 “민감한 정보”를 전한 사람, 의의인사 등등이 모두 로교와 감시혹형의 대상으로 되었다. 각지 정법위원회 관리들은 사람을 붙잡는 편리를 위하여 심지어 타격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룬궁”이라고 했다.

중공에 대한 마음속의 환상을 포기하라

대륙 매체에서 로교소의 죄악을 폭로하자 새로 구성된 중공 당국은 로교소를 닫겠다는 소문을 퍼뜨렸는데 까놓고 말하면 날마다 증폭하고 있는 국제 국내 여론의 압력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오

래동안 루적된 민중의 원한을 평정시키기 위한 것이며 더우기는 다가오는 멸망을 완화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며 방법없는 개변이며 혹은 반인류 죄행을 덮어감추기 위한 쇼라고 할 수 있다.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중공이 아무리 가면을 바꾸더라도 그것의 반인류의 본질은 종래로 개변한 적이 없다. 마음속에 있는 중공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고 용감히 파룬궁 진상을 대면하여 선택한 일념과 량지로 자신을 주도해야 만이 비로서 새 기원으로 가는 방주(方舟)에 오를 수 있다. ◇